



- 1. 회사명 : (주)스틸코리아
- 2. 성명 : 박대열
- 3. 직위 : 대표이사

### 현재 국내 가설교량 시장은 기존공법

“현재 국내 가설교량 시장은 기존공법, TRUSS 공법, ATOM 공법 등 3가지로 대별되며 TRUSS공법은 일본의 기술과 자재를 직도입한 것으로 현재 ATOM 공법의 우수성으로 인해 시공실적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계최고의 교량 전문회사를 목표로 하는 스틸코리아 박대열 사장은 ‘조립식 장력 강재보(ATOM 가설교량공법)’ 기술로 이번 특허기술대전에서 IFIA(국제발명가협회) 회장상을 수상했다.

이 기술은 교량의 주형으로 쓰이는 강재 중앙하부에 편향부를 설치하고, 사용시중이 교량에 작용하기 전 Beam 의 하부 양단 정착구에서 편향부와 분리되어 있는 강현부재에 Prestress를 도입함으로써, 구조물에 작용할 사용중과 반대되는 방향의 수축과 응력을 미리 가해놓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통하여 DB-24하중조건에 지간거리를 기존 공법의 6-10m에서 최소 30-최대50m까지 긴 구간화함으로써 하천의 원활한 유수 소통은 물론, 시가지 교량 시공에 있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교량 시공으로 인한 추가 소요 간접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했다.

또 기존 용접에 의한 시공법을 탈피하기 위해 원부자재 일체를 규격화 표준화해 일체 조립식 거치형태로 시공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시공 능력에서도 뛰어난 기술이다.

박 사장은 “ATOM 공법은 기존 공법에 비해 동일 하중조건에서 대단히 우수한 안정성을 지니며 고속도로, 철도용 가설교량, 작업용 가설교량, 호우 등 재해 긴급복구용 교량 등 적용범위가 광범위하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ATOM 가설교량공법의 매출은 99년 말부터 일어나기 시작해 올 상반기에는 75억원을 달성했고 연간으로는 200억원의 판매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했다.